

## 2019년 안암병원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안암병원 2019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산안위에는 노사 위원 및 참관인들이 자리했다.

사, 산안위를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 이야기 하자.

노, 열악한 환경 완전히 해소 못 해도 하나하나 바꿔가자.

노사 대표 인사에서 박종훈 병원장은“지난 한 두 달 사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만 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태라 환자와 직원들이 힘들었던 부분을 해소해주지 못해 힘들었다. 오늘 산안위를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측 대표인 노재옥 지부장은“포탈 게시판에 올라온 불만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노동자대표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포탈글에서 노동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안전한 병원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면서 노력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더 많다. 직원들의 불만을 한번에 해소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바꾸려고 한다. 산안위에서 직원 안전 환자안전 안전한 병원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본 회의에서는 노동조합이 병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2018년 4-4분기 산안위에서 논의되었던 안전에 대한 점검 및 진행여부, 1-4분기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병원안전은 시설안전부터가 시작이다.

시설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해결하기로

논의 안전 중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으로 시설안전의 문제를 논의했다. 노재옥 지부장은“현재 휴가등을 사용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여 근무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는 시설에 중대한 위험요소이다. 대표위원께서 관심가져주어야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설안전을 우려하자. 박종훈 병원장은“이와 관련된 시설팀 현장문제를 전체적으로 가져오시면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보겠다.”며 병원과 직원 안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노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기로.

이번 산안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개 병원 노사 안전보건관리자가 참가하는 TFT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산안위에서 나오는 현안에 대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논의하기에는 노사의 입장과 사례들을 풀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실무진이 부서의 사례를 취합하여 실질적인 결론을 내자라는 노사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안전	노동조합 질의	병원 답변
노동조합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b>【탄력스타킹 지급에 관한 건】</b> ① 스타킹 지급 부서를 명시해 주면 좋겠다. 부서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알겠다. 부서별로 정리해서 드리겠다.
	<b>【의약품 지급에 관한 건】</b> ① 야간 약국 의약품 지급 횟수는 어떤가?	①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주간 및 야간 지급 현황을 나눠주시면 홍보를 통해 독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p><b>【간편복 병동 확대에 관한 건】</b></p> <p>① 안산이 질개선 및 요구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안암동은 의사가 있는가?</p> <p><b>【진단검사의학과 국소배기장치 설치에 관한 건】</b></p> <p>①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가?</p> <p>② 설치 대수는 몇 대인가?</p>	<p>① 병원별로 조사하기 보다는 안산에서 한 조사를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3개병원이 함께 하는 TFT를 진행하면 좋겠다.</p> <p>① 시설팀, 진검담당자, 안전관리자, 시설업체등이 한꺼번에 확인했으며 새어나올 염려는 없다. 과부하로 인해 빨아들이는 과정이 멈춰서 냄새가 나는데 큰 이상은 없다.</p> <p>② 진단검사의학과 내에는 10대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다.</p>
논의안건	노측 요구	사측 답변
1)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p><b>【노사 TFT 구성에 관한 건】</b></p> <p>직원 간편화 지급에 관해 논의해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p> <p>질 개선을 포함하여 규정에 없는 부서에 대한 확대지급 및 간호부 추가 지급등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p>	알겠다. 구성해보도록 하겠다.
3)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p><b>【시설팀 부서 통합에 관한 건】</b></p> <p>최근 시설팀 주말 휴가 대체 근무자를 부팀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편법적인 대책이다.</p> <p>또한, 휴가 사용 시,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인원을 줄여서 근무하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병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며, 시설물 재해 사고를 방조하는 행위다.</p> <p>안전한 병원은 시설의 안전해야 환자안전하고 직원이 안전하다. 병원의 책임자인 대표위원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p>	노조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주시면 팩트체크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답하고 의료원에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겠다.
5) 근로자의 유해 ·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건	<p><b>【보호대 지급 건】</b></p> <p>근· 골격계 질환 예방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손목 보호대 및 허리 보호대를 지급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그 전에 지급이 필요한 부서 및 대상자 조사를 선행했으면 한다.</p>	TF안건으로 같이 넣어서 노측에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조사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 <고대의료원포탈 게시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우리지부는 현재 고대의료원 포탈 자유게시판에 조합원 및 직원분들의 글에 대해 지난 3월 7일 3개 병원 중식 선전전(할 말은 한다 3호)을 통하여 입장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노조 게시판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게재하였으며 조합원들에 한 해 단체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1. 노동부 근로감독관 면담을 통해 연장근무 수당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 대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접수하여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 노사 연구용역 연구진 면담을 통해 현재 고대의료원이 고쳐야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현장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결과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보건의료인력법 입법을 위한 투쟁과 연대 활동을 통해 이후 노동조합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등은 순회를 통해 현장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문자를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욱 크고 강한 노조가 되라는 조합원들의 애정담긴 채찍질이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